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민미희¹ 김정민² 김지현³

Mihee Min¹ Jung Min Kim² Jihyun Kim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For this purpose, we crea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xamin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using the RMSEA, SRMR, TLI, and CFI. The participants were 986 4-year-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taken from the 5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directly. And a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through the parenting behavior. Second,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directly. And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through the parenting behavior. These findings imply that both improving marital relationships and regula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need to be emphasized when design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¹ 제1저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jungminkim@cu.ac.kr)

³ 공동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key words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I. 서론

유아기는 넓어진 인적 관계의 폭 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시 갈등과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Lutz, Fantuzzo, & McDermott, 2002). 행동문제는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나타내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정문자, 김문정, 2004; Achenbach, 1991; Mash & Dozois, 1996),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된다(Achenbach, 1991; Achenbach & Rescorla, 2000). 유아기에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행동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동기 및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Emond, Ormel, Veenstra, & Oldehinkel, 2007; Mazza et al., 2008). 이에 행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에 대해 송진숙(2003)과 조미영, 정미경, 그리고 김영희(2010)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러 선행연구들(권정윤, 안혜준, 송승민, 권희경, 2013;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Campbell, 2000)에서 생물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기질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환경 등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 요인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고(Cummings & Davies, 2002;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유아의 주된 양육자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장미연, 최미경, 2015).

유아의 행동문제 중 불안/우울은 상당수의 유아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주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또한 공격행동은 다른 심리적 특성보다 발달단계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고(Broidy et al., 2003), 가족 환경이 유아의 공격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장미연, 최미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우울, 공격행동을 중심으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들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임정하, 윤정진, 2010; Davies & Cummings, 1994; Holtzworth-Munroe, Rehman, & Herron, 2000)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유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서 부모 생활뿐 만 아니라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장 발달과 성격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황성운, 2014). 부부갈등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부모의 갈등은 큰 스트레스 원이자 정서적 위협 요인으로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유아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즉 부부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정란, 2004; 장미연, 최미경, 2015; 장진아, 신희천,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Davies & Cummings, 1994; Essex, Klein, Cho & Kraemer, 2003; Kitzmann, 2000; Kouros, Merrilees & Cummings, 2008; Martin & Clements, 2002), 5세 자녀를 둔 부부의 적대적 관계는 자녀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Katz & Gottman, 1993).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부갈등이 가장 심하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 Rovine, 1990). 그러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기 자녀 대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 가족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주 양육자가 인지하는 곤란함 또는 부담감(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을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ater-Deckard(1998)는 양육 스트레스는 실제 양육행동 뿐 아니라 유아기 이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심리에 해당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가 여러 형태의 공격성을 보이고(최혜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송진영, 김규수, 2012;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많은 시간과 상황에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2013). Webster-Stratton와 Herbert(199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거부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불안/우울 및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고윤희, 김숙령, 2013; 김종훈, 성지현, 2014; 김지현, 박경자, 2006; 박미진, 강지현, 2012;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미정, 2013; 장영애, 이영자, 2011; Aunola & Nurmi, 2005; Barnett & Scaramella, 2013; Bornstein, Hahn, & Haynes, 2011),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김종훈, 성지현, 2014; 임미지, 문혁준, 2014; 임현주, 2016;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Bugental & Grusec, 2006; 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 Grusec, 2011)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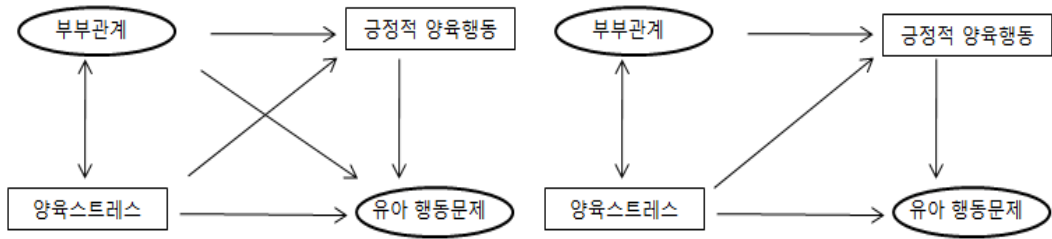
유아 행동문제의 관련요인으로 부정적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행동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경남,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Kishnakumar & Buehler, 2000; Kouros et al., 2008). 즉 부부간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민하영, 2010; 민하영, 이영미, 2009; 연은모, 윤혜옥, 최효식, 2016; Asuquo & Maliki, 2007; Volling, Blandon, & Kolak, 2006). 또한 Abidin(1990, 1992)은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이는 강압적 훈육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많은 선행연구들(김염춘, 장영애, 2013; 김종훈, 이지영, 성지현, 2013; 김현령, 류수민, 2015; 이인학 등, 2013; 이희정, 2015; 임선아, 임효진, 2015)에서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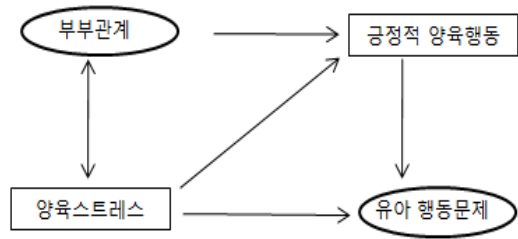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으로서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부부관계의 질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된다. 먼저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지지의 자원으로 기능하면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예남희, 민하영, 2010; Grych & Fincham, 1990; Grych, Seid, & Fincham, 1992). 즉 결혼만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김기현, 조복희, 2000; 박경자, 권연희, 2002),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민하영, 2015; 서주현, 김진경, 2012; 옥경희, 천희영, 2012; 이희정, 2014; 이희정, 2015).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국선민, 2008; 김미성, 전귀연, 2003)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애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는 등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반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를 거부하거나 통제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 증가할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등, 2016; 이민식, 오경자, 2000; 황성운, 2014;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Yu, Pettit, Lansford, Dodge & Bates, 201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 Abidin(1990)의 모형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긍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양육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적절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강은진, 이예진, 이정림, 2016; 민하영, 이영미, 2009; 이인학 등,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장성오, 김용미, 2011; Anthony et 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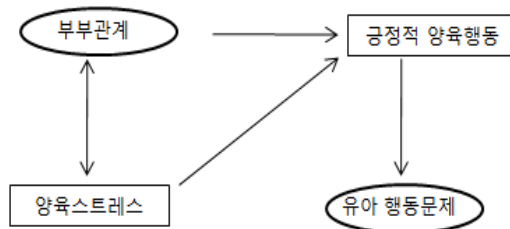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정적 부부관계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정적 부부관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를 밝히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로를 연구모형과 비교하기 위해서 직·간접 경로를 달리한 경쟁모형을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경쟁모형1은 부정적 부부관계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접 효과를 제거한 모형이고, 경쟁모형2는 부정적 부부관계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접 효과와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접 효과를 제거한 모형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 행동 및 유아행동문제(불안우울, 공격행동)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불안우울,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2.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3. 부부관계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4. 양육스트레스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4세 유아와 어머니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할 장기종단연구이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나누어 권역

별 연간 분만 건수로 비례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2년) 조사에 참여한 1,703명 중 유아행동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986명의 만 4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부관계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이다.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 문항수가 적어 실시가 용이하고, 단일차원의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바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2004)이 KMS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한 결혼만족도로써,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9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문항수가 적어 실시하기 용이하고,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된 바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갈등으로써,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5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다

3) 긍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실제 척도는 Bornstein 등(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PSQ는 원래 긍정적 양육방식을 알아보는 문항 6개와 와 한계설정 양육방식을 알아보는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4) 유아행동문제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는 2009년도에 오경자와 김영아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표준화한 검사이다. CBCL 1.5-5는 총 99문항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다’ 0점, ‘약간 혹은 때때로’ 1점, ‘매우 혹은 종종’ 2점 등 3점 평정척도로 평가한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의 2개 요인점수, 총 문제행동척도 등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불안/우울과 공격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불안/우울과 공격행동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8, .81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변인들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EM)의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 적합지수인 χ^2 (Chi-square), RMSEA, SRMR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고, 직 · 간접 효과는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홍세희, 2012).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는 -.53~.68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 = 986)

구분	1	2	3	4	5	6
부부관계						
1. 결혼만족도	1.00					
2. 부부갈등	.68***	1.00				
3. 양육스트레스	.33***	.39***	1.00			
4. 긍정적 양육행동	-.30***	-.28***	-.53***	1.00		
유아 행동문제						
5. 불안우울	.06*	.11***	.25***	-.15***	1.00	
6. 공격행동	.14***	.21***	.31***	-.27***	.57***	1.00
M	9.22	16.87	30.11	22.01	2.96	6.48
SD	3.03	6.23	7.18	3.21	2.18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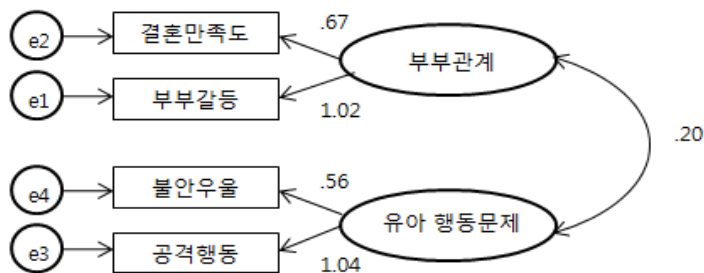
* $p < .05$,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1)에 따라 최대우도측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부부관계와 유아행동문제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SRMR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00, TLI = 1.005, CFI = 1.000, SRMR = .017로 나타났으며, Hu & Bentler(1999)의 구조모형 적합도 권장지수에 근거해

〈표 2〉 측정모형 부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P	TLI	CFI	SRMR	RMSEA
측정모형	0.3	1	.000	1.004	1.000	.002	.000



[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분석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β	<i>S.E</i>	<i>t</i>	<i>p</i>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32	.67	.05	6.20	.000
	부부갈등	1.00	1.02			
유아행동문제	불안우울	.23	.56	.05	4.44	.000
	공격행동	1.00	1.04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부합도와 요인분석 결과는 <표 2> 및 [그림 4]와 같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림 4],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ized Factor Loading)이 .5 이상($t > 1.965$)으로 관측변수들의 수렴 타당도를 만족하였고, 잠재변수들간 상관은 .20으로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다.

3. 구조모형 분석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성 분석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행동, 유아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경쟁모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교하면, 경쟁모형1과는 χ^2 값의 차이는 7.33, $df=1$ 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경쟁모형2와는 χ^2 값의 차이는 52.44, $df=2$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도 값이 1차이가 날 때, χ^2 의 값이 3.84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정하므로(홍세희, 2012),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 모두 연구모형과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chi^2 = 37.23$ ($df = 6$, $p.000$), $TLI = .954$, $CFI = .982$, $SRMR = .029$, $RMSEA = .073$ 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2) 최종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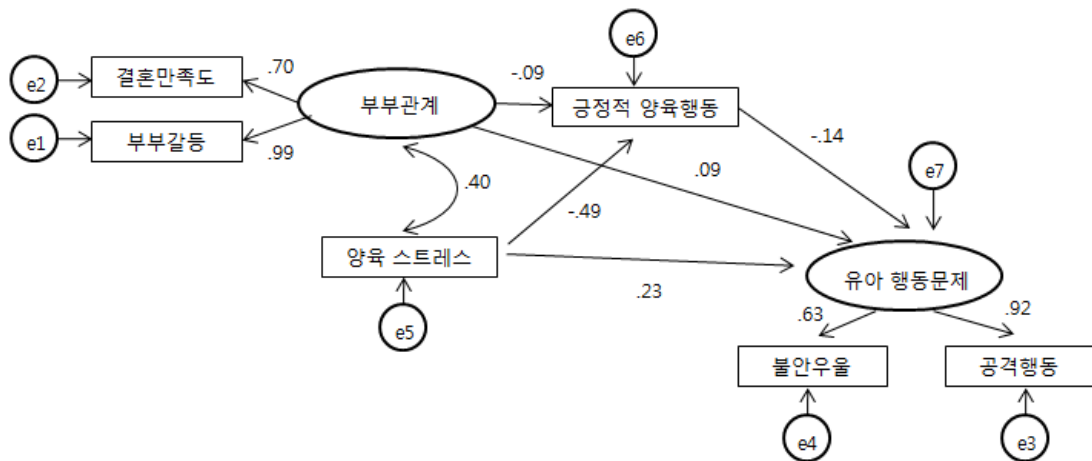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관계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9$, $p < .01$). 둘째, 부부관계는 긍정적 양육행동($\beta = -.0929$, $p < .01$)에,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beta = -.140$,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지수

적합도	χ^2	<i>df</i>	<i>P</i>	<i>TLI</i>	<i>CFI</i>	<i>SRMR</i>	<i>RMSEA</i>
연구모형	37.23	6	.000	.954	.982	.029	.073
경쟁모형1	44.56	7	.000	.953	.978	.034	.074
경쟁모형2	89.67	8	.000	.910	.952	.069	.102

<표 5>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p
부부관계 → 긍정적 양육행동	-.048	-.092	.015	-3.117	.002
양육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223	-.499	.013	-17.036	.000
부부관계 → 유아행동문제	.073	.099	.026	2.753	.006
양육스트레스 → 유아행동문제	.146	.231	.025	5.753	.000
긍정적 양육행동 → 유아행동문제	-.198	-.140	.054	-3.647	.000



(그림 5)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결과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덜 보이고, 불안/우울 및 공격성의 유아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1, p < .001$). 넷째,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beta = -.092, p < .01$)에,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beta = -.14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덜 보이고, 불안/우울 및 공격성의 유아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고, 부정적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와 양육 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6>과 같다. 부부관계와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인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정적 부부관계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부관계→긍정적양육행동→유아 문제행동).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육스트레스→긍정적 양육행동→유아 문제행동)

〈표 6〉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관계 → 긍정적 양육행동	-.092**	-	-.092**
양육 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499***	-	-.499***
부부관계 → 유아행동문제	.099**	.013**	.112**
양육스트레스 → 유아행동문제	.231***	.070***	.301***
긍정적 양육행동 → 유아행동문제	-.140***	-	-.140***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부부관계와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29.5% 설명하였고,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 행동문제를 1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주목하여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정적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부갈등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가 유아(윤혜미, 최문정, 2006) 및 아동 청소년(김정란, 2004; 장미연, 최미경, 2015; 장진아, 신희천,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Essex et al., 2003; Kitzmann, 2000; Kouros et al., 2008; Martin & Clements, 2002)의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기는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정적 부부관계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행동문제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부갈등이 가장 심하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 Rovine, 1990). 따라서 유아 행동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 초기의 부부관계와 부부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결혼 초기 부모들을 위한 갈등해결방법 및 부부갈등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부갈등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민하영, 2010; 민하영, 이영미, 2009; 연은모 등, 2016; Asuquo & Maliki, 2007; Cui & Conger, 2008; Volling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부영역에서 발생한 정서,

감정, 기분이 부모자녀영역으로 파급된다(Erel & Buman, 1995)는 파급가설(spillover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부간 갈등과 만족 여부는 유아에게 불안이나 죄책감, 공격성을 유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방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송진영, 김규수, 2012; 이인학 등,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최혜리,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자녀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간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염춘, 장영애, 2013; 김종훈 등, 2013; 김현령, 류수민, 2015; 이인학 등, 2013; 이희정, 2015; 임선아, 임효진,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불안/우울 및 공격행동 등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부부관계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행동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적 불안과 어려움, 공격행동 표출 등의 정서 행동문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수용적임과 동시에 유아의 사고와 행동에 자율과 통제를 부여하는 조화로운 양육행동이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기여를 하고,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와 사회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기 정신건강문제는 부모라는 생태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유아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에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적절한 환경적 자극을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부부 갈등이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때,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부갈등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부정적 부부관계 중 부부갈등에서 다양한 하위 구인을 살펴볼 수 없었다. 부부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정교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부부갈등의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2012년에 수집한 만 4세 유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적 부부관계,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아동기를 포함하게 되면 후속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기를 거치면서 종단적으로 부모 및 가족관계 변인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

및 가족관계 변인이 유아 및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하고 부모교육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어린 시기인 유아기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육관련 스트레스 및 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부갈등을 줄이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진, 이예진, 이정림 (201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8, 29-49.
- 고윤희, 김숙령 (201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27-51.
- 국선민 (2008).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 안혜준, 송승민, 권희경 (2013). **유아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유아 개인, 가정환경, 지역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353-373.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 조복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미성, 전귀연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7-228.
- 김염춘, 장영애 (2013).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99-118.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 학대 및 자녀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종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1-410.
- 김종훈, 이지영, 성지현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4(6), 77-96.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민하영 (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2.
- 민하영 (201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의 영향: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2), 131-143.
- 민하영,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집단주의적 양육가치가 유아의 공격 및 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문화**, 21(4), 21-39.
- 박경자, 권연희 (2002).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 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송진숙 (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송진영, 김규수 (2012).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유아, 교사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345-365.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미정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과 권리**, 17(1), 109-135.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태도 간 관계: APIM 모형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28.
- 예남희,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67-74.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주) 휴노컨설팅.
- 옥경희, 천희영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15-221.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경남 (2004). 한국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 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1)**, 69-81.
- 이희정 (2014).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15-141.
- 이희정 (2015).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변인과 중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4)**, 209-227.
- 임미지, 문혁준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임선아, 임효진 (2015).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59-184.
- 임정하, 윤정진 (2010).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인간발달연구**, **17(1)**, 263-284.
- 임현주 (2016).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변인 군집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6(1)**, 37-55.
- 장미연, 최미경 (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3(5)**, 567-580.
- 장성오, 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 장영애, 이영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83-205.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옥분 (2013). **아동발달의 이해**. 파주: 양서원.

- 조미영, 정미경, 김영희 (20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정서조절,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211-237.
- 최혜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12, 12).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모형과 최신발전*. 2012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황성온 (2014). 어머니 결혼 특성, 심리적 특성, 양육스타일이 유아기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3), 355-378.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42.
- Achenbach, T. M. (1991). *Child behavior checklist/4-18*.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Asuquo, P. N., & Maliki, A. E. (2007). Values orientation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Implication for marriage counselling *Stud. Tribes Tribals*, 5(1), 59-63.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nett, M. A., & Scaramella, L. V. (2013). Mothers' parenting and child sex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5), 773-783.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9.
- Bornstein, M. H., Hahn, C. S., & Haynes, O. M. (2011). Maternal personality, parenting cognition, and parenting practices. *Psychology*, 47(3), 658-675.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Galperin, C., et al.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adbury, T., Fincham, F.,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es*, 62(4), 964-980.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 Dodge, K. A. (2003).

-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 Bugental, D. B., & Grusec, J. E. (2006). Socialization processes.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pp. 366-428). NY: Wiley.
- Calkins, S. D., Smith, C. L., Gill, K. L., & Johnson, M. C. (1998). Maternal interactive style across contexts: Relations to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gulation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73(3), 350-369.
- Campbell, S. B. (2000).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2nd ed.). NY: Guilford Press.
- Chronis, A. M., Lahey, B. B., Pelham, W. E., Williams, S. H., Baumann, B. L., & Kipp, H.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ositive parenting predict future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70-82.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ui, M., & Conger, R. D. (2008). Parenting behavior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problems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261-284.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 43(3), 31-63.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Y: Guilford.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i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Emond, A., Ormel, J., Veenstra, R., & Oldehinkel, A. J. (2007). Preschool behavior and social-cognitive problem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isruptive behavior. *Child Psychiatry of Human Behavior*, 38(3), 221-236.
- Essex, M. J., Klein, M. H., Cho, E., & Kraemer, H. C. (2003). Exposure to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6), 728-737.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rusec, J. E. (2011).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famil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2), 43-69.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Grych, J.,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Holtzworth-Munroe, A., Rehman, U., & Herron, K. (2000). General and spouse-specific anger and hostility in subtypes of maritally violent men and nonviolent men. *Behavior Therapy*, 31(4), 603-630.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czynski, K. J., Lindahl, K. M., Malik, N. M., & Laurenceau, J. P.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199-208.
- Katz, R.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40-950.
- K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Kline, R. B. (200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 Kouros, C. D., Merrilees, C. E., & Cummings, E. M. (2008).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in the context of parental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684-697.
- Lutz, M. N., Fantuzzo, J., & McDermott, P. (2002).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 adjustment problems of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3), 338-355.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artin, S. E., & Clements, M. L. (2002). Young children's responding to interparental conflict : Associations with marital aggression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2), 231-244.
- Mash, E. J., & Dozois, D. J. (1996). Child psychopathology: A developmental-systemic perspective. In E. J. Mash & R. A. Barkly (Eds.). *Child psychopathology* (pp. 3-62). NY: Guilford Press.

- Mazza, J. J., Abbott, R. D., Fleming, C. B., Huarache, T. W., Cortes, R. C., Park, J., et al., (2008).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A 7-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0), 1-29.
- Mulsow, M., Caldera, Y., Pursley, M., & Reifman, A.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Volling, B. L., Blandon, A. Y., & Kolak, A. M. (2006). Marriage, parenting, and the emergence of early self-regulation in the family syste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4), 493-506.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UK: Wiley.
- Yu, T., Pettit, G. S., Lansford, J. e., Dodge, K. A., & Bates, J. E. (2010).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n parent-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82-292.

논문투고 : 16.08.13

수정원고접수 : 16.11.17

최종게재결정 : 16.12.01